

# G331의 가장 아름다운 변경 명품관광 로선으로 거듭나려다

## — 삼합진, 향토 특색 견지해 향촌 진흥과 자본의 적절한 융합 추진

천고마비의 계절, 파란 하늘에 흰구름을 띄우고 굽이굽이 늘어진 산길을 예뻐아 통정 시가지에서 약 40키로미터 떨어진 삼합진 북흥촌의 자그마한 변경마을 천수툰에 이르니 그림같은 산수화가 눈앞에 펼쳐졌다.

‘북흥촌 향촌 진흥 조선족민속문화산업발전대상’의 마무리 공사를 앞두고 일군들의 분명한 망치소리가 고요한 마을을 깨우고 갓 등등을 마친 서부계획 대학생 지원자들이 마을을 오가며 마을 길을 익히기에 바빠 돌아친다. 마을 입구에는 농촌과 도시의 조화를 적절히 잘 버무려낸 듯한 G331 커피숍 랑정으로 여러채의 별장식 민박이 정갈하게 들어서있어 향촌 관광산업이 본격적으로 일떠서고 있음을 한눈에 보아낼 수 있었다.

“시골에서 마시는 커피는 사뭇 다른 느낌일 것입니다. 얼마후면 이곳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산을 병풍 삼아 온천욕도 가능할거구요.”

친절하게 말을 건네오는 길림성불함산사관광유한회사 민속문화산업발전대상 운영책임자 장소씨는 익숙한 솜씨로 아메리카노 한잔을 내려주며 가이드마냥 친절하한 안내말을 건넰다.

그의 소개에 따르면 이 조선족민속문화산업발전대상은 총 투자액이 5,300만원인데 삼합진 천수툰에 위치한 백년가옥을 예뻐싸고 도합 33채의 현대식 민박이 일떠서게 된다.

이 대상의 설계와 운영은 길림대학, 동남대학, 천진대학, 로씨야와 영국의 미술학원 등 대학교의 예술 디자인 전문인원으로 구성되었는데 ‘몰입식 장터문화와 체험식 향토문화’를 설계와 운영의 취지로 했다. 이 대상은 룡정시의 향촌 진흥 대상건설과 전염화, 시강화, 국제화 개혁 시범 등 분야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입해 자본과 향촌의 유기적인 융합을 실현할 것으로 보인다.

대상은 모두 2기에 걸쳐 완공될 예정인데 올해 10월말부터 1기 대상이 정식 운영에 투입, 민박 일괄체에 주차장, 커피숍, 체험기지, 공연장, 식당 등 부대시설을 구전하 갖추어 관광객들에게 개방하게 된다. 촌에서는 향토 특색을 견지하는 한편 향촌 진흥과 향촌 건설의 적절한 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중이다. 동시에 ‘원생과 공생’ 융합 수법을 채택해 숙박과 식당은 기존 주택을 기초로 개조와 확장을 진행하여 관광객들의 수요를 만족시킬 것으로 보여 벌써부터 기대가 모아진다.



▲ 삼합진 북흥촌 천수툰에 있는, 140년 세월을 자랑하는 조선족 전통가옥.

이 밖에 삼합진관광객집산중심 아래쪽에 위치한 삼합진 민속거리 건설대상은 중심거리에 위치한 18채의 상업건축을 개조하고 물, 전기, 조명, 도로를 개조하여 상업, 거주, 레저, 생활 분사를 일체화한 특색상업구역을 조성하게 된다.

올해 삼합진에서는 또 60만원을 투입하여 망강각풍경구를 개조하고 부대시설을 보완했다. 망강각은 오봉산에 위치해있는데 망강각 정자에 올라보면 조선 함경북도 회령시의 모습이 한눈에 바라보인다. 망강각 한편에 있는, 현재 2층으로 된 레저중심에서도 일군들이 한창 야외 커피숍 외부 시공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해발고가 329.1미터인 망강각에서 굽어보면 국가급 룽통상구인 삼합통상구가 한눈에 안겨온다. 이 밖에도 현재 삼합진에서는 한왕산성 유적에 대해 일출 발굴, 보호, 개발하고 있고 인력, 물력, 재력 투입을 확대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천수저수지 하류에 위치한 산천어 부화양식지도 제품 연구개발, 현지 관광과 결합하여 ‘농업과 관광 결합, 문화와 관광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산업사슬을 연장하여 ‘관광+’ 모델을 발전 리념으로 농촌관광 종합체를 다그쳐 건설중이다. 총 투자액이 1억 803만원인 이 대상의 부지면적은 2만 5,919헥타르, 건축면적은 1만 4,845헥타르인데 현재 4개의 공장건물 주체 건설(양식장, 부화장, 생산작업장, 양식부대)을 완성하였다. 2024년 7월까지 기업은 2,403만원을 투입하여 룽화, 경화, 조명 및 실내장식 등을 완성하고 2024년 8월부터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이 대상이 완공되면 100여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되고 매년 연인원 3만명의 외지 관광객을 유치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생산액은 1억 5,000만원, 세수는 3,000여만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룡정삼합문화관광발전유한회사에서 투자, 건설하는 삼합진 전원종합대상은 총 부지면적이 2,651평방미터인데 정부에서 재정자금 600만원을 투입하여 부지면적이 1,200평방미터인 온실대상과 부지면적이 600평방미터인 사과배 우량선생량조대상을 건설했다. 이 대상은 미니전원종합체 모식의 총체적 계획에 따라 사무구역, 민박구역, 관광온실구역, 감상구역, 령장보관구역 등 5개 기능구역으로 나뉘게 된다.

### 백산시 혼강구

현재 건설중에 있는 삼합진관광객집산중심 대상은 부지면적이 6,142평방미터, 건축면적이 1만 4,845평방미터 규모로 2025년 6월에 준공 예정인데 망강각풍경구, 백년가옥, 삼합통상구, 한왕산성을 묶어 변경 특색을 갖춘 변경관광벨트를 조성함으로써 삼합진 변경 연선 생태 및 관광 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전망이다.

대상이 완공되면 현지 농가에 더욱 좋은 판매 경로를 제공하여 매년 적체되는 사과배 등 농부산물을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숙박 부담 완화는 물론 관광객들이 숙박 과정에서 조선족의 독특한 민속 습관과 민속 분위기를 체험하게 된다. 또한 농산물과 부업생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계절 계절의 판매를 증가시켜 농민들의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을뿐더러 매년 총집체에 25만 2,000원의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 대상건설은 삼합진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삼합진의 이미지를 제고하며 삼합진의 무역과 관광 발전을 촉진하고 경제 발전을 이끌며 공동화, 공산화 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알아본 데 따르면 삼합진은 지난해 성농업농촌청, 성농촌진흥국에서 첫진으로 선정한 향촌 진흥 시범향진, 시범촌에 입선되었고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길림성종교사무국) 제 8차 선진 민족단결진보시범구시범단위, 길림성 ‘제 5차 전국 농촌관광 중점촌진’과 ‘제 4차 성급 농촌관광 중점촌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로 십년째 삼합진당위 서기로 굳건히 자리를 지켜오고 있는 박호범은 강산도 바뀔 법한 십년 동안 삼합의 크고 작은 변화들을 구상하고 실천에 옮겨 성과들을 이뤄냈다. 그는 향후 삼합은 특산, 자유무역, 관광업을 둘러싼 관광회사기업 유치에 중점을 두고 투자상담회를 개최할 계획도 추진중인데 최근 특산산업과 관광산업을 위주로 한 여러개 회사들이 삼합진을 찾아 투자 의향을 밝혔다고 말했다.

### 장백조선족자치현

▼ 촌민들로부터 ‘장수샘’으로 불리는 천수샘

집의 외관은 지어질 당시의 그 목가적인 분위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농촌 가옥에서만 볼 수 있는 대들보가 천정을 받쳐주고 있었고 그 대들보 한구석에는 제비가 둥지를 틀어 ‘집터’를 일궈놓았더라. “제비가 둥지를 틀는 집은 좋은 집”이라는 옛날 어른들의 말도 있지 않나며 장소씨는 우스갯소리를 곁들여 농촌 ‘구들’과 ‘아궁이’를 가리키며 설명을 마쳐 이어갔다.

현유 가옥의 기초에서 개조와 확충을 진행하고 그중 건축물은 ‘미약하게 개조, 정밀하게 향상’시키는 예술적인 향촌 건설 수법을 취해 가옥의 ‘날것’ 그대로를 지키려는 노력을 잃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상주인구가 천명도 안되는

그는 “관광 로선 풍경대 연선에 위치한 삼합진은 이러한 우세들을 활용하고 현재 갖고 있는 관광업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발전을 다그쳐 G331이 경유하는 삼합 구간을 가장 아름다운 변경 명품관광 로선으로 발돋움시켜보려다.”며 다부진 욕심을 조심스럽게 내비쳤다.

모두가 기대하는 G331 삼합 구간 개통이 그래서 더 손꼽아 기다려지는 까닭이기도 하다.

/ 김명화 김가혜 기자



### 화룡시

방치됐던 마을의 유희지, 관광객 힐링 공간으로 변모.



잘 닦여진 농촌도로를 따라 차로 한시간 남짓 달리면 도착하는 곳, 차창을 통해 펼쳐지는 고요하고 목가적인 풍경에 두 눈이 즐거울 사이, 룡정 시가지에서 40키로미터쯤 떨어진 룡정시 삼합진 북흥촌이라는 작은 마을이 나온다.

그러나 또 마을 입구에 마련된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마을에 들어섰을 때 다시 눈앞에 펼쳐진 정경은 목가적 풍경과 도시적 느낌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단층주택단지를 련상케 하는 가쁜 현대식 담벼락이 집집이 둘러져있어 휴양지에 들어선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는가 하면 마을 어귀를 지나 보이는 한 구조물은 도회적인 외형부터 눈길을 사로잡았다.

낮은 담장 때문에 ‘G331 Cafe&Park’ 간판을 걸었던 이 구조물은 도시에서는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커피숍이었다.

현대식이 주를 이루는 도시의 커피숍과 달리 주변에 조성된 신축 공간이 현대 분위기를 자아냈다면 기와가 얹어진 단층집의 형태는 가옥의 년대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과연 가옥의 입구에 걸려있는 소개글이 건물의 나이를 짐작케 했다. ‘중국전통마을’이라고 씌여진 간판에는 호수 이름과 함께 가옥 년한을 ‘1921년부터 현재’라고 표기하고 있었다.

“집주인은 있지만 오래동안 방치된 ‘빈집’을 헐려서 갖고 우리 회사가 ‘빈집 개조’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5년후부터는 영입액에서 집주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운영책임자 장소씨의 소개에 따르면 촌의 유희지가 활용되어 조성된 공간이 바로 커피숍이다.

유희지 활용에 적극 뛰어들어 몇년간 빈집으로 방치됐던 이 공간을 되살린 것은 연변불함산사(不咸山寺) 관광유한회사이다.

“가옥이 갖고 있는 본유의 상태를 보존하는 것과 공생을 결합하는 방식을 고수하면서 유희지 개조를 전개한다.”고 밝힌 장소씨의 말따라 커피숍에 발을 들이니 커피기계를 들이고 커피숍 공간을 조성했음에도 가옥의 구조가 그대로 보류된 기초에서 작업이 진행된 터라 세월이 그대로 느껴졌다.

집의 외관은 지어질 당시의 그 목가적인 분위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농촌 가옥에서만 볼 수 있는 대들보가 천정을 받쳐주고 있었고 그 대들보 한구석에는 제비가 둥지를 틀어 ‘집터’를 일궈놓았더라. “제비가 둥지를 틀는 집은 좋은 집”이라는 옛날 어른들의 말도 있지 않나며 장소씨는 우스갯소리를 곁들여 농촌 ‘구들’과 ‘아궁이’를 가리키며 설명을 마쳐 이어갔다.

현유 가옥의 기초에서 개조와 확충을 진행하고 그중 건축물은 ‘미약하게 개조, 정밀하게 향상’시키는 예술적인 향촌 건설 수법을 취해 가옥의 ‘날것’ 그대로를 지키려는 노력을 잃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상주인구가 천명도 안되는

‘이 한가롭고도 조용한 전원엔 커피숍이 웬말이나?’ 의구심이 생길 만도 했다. 그리고 그 해답은 간판에서 찾을 수 있었다. 커피숍의 이름이 괜히 ‘G331’인 게 아니었다.

‘G331’ 국도중 집안에서 훈춘까지 이어지는 이 ‘G331’ 길림 구간은 1,437키로미터에 달하는데 웅장하고 수려한 산수풍광은 물론 풍요로운 토산물과 독특한 변경 풍치를 자랑한다. 특히 올해 6월에 길림성은 <길림성 연변(沿边) 개방관광대통령 관광발전계획>을 발부하여 G331의 세계여로의 ‘진출’을 전력 추종했다.

바로 이 ‘G331’ 길림 구간에 삼합진이 포함되면서 삼합진 북흥촌도 따라서 정책의 바람을 타게 되었던 것이다.

길림성불함산사관광유한회사의 자회사인 연변불함산사관광유한회사 또한 삼합진에서 유치한 기업이자 삼합진과 협력하여 ‘삼합진 북흥촌 향촌 진흥 조선족민속문화산업발전대상’ 등을 적극 추진중에 있다고 한다. 향촌생활, 민간문화를 담체로 한 향촌 문화관광 융합성 항목이 주를 이루는 이 대상은 2기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가옥 개조와 증축이 포함된다. 이 회사 역시 삼합진의 지역 발전 성과 미래 비전을 충분히 고려했다.

“올여름 갓 개업을 시작한지라 아직 홍보단계에 있거든요. 그런데 G331 로선을 따라 관광을 다니시는 분들은 우리 가게에 많이 들리더라고요. 얼마전에도 자가운전 여행으로 연변을 찾았다가 G331 로선을 따라 관광중이던 절강성 관광객 두분이 오셔서 커피를 마시고 갔어요.”

관광객들 입소문뿐 아니라 연길의 중소학교 들에서도 연합팀을 무어 북흥촌을 찾는다고 했다.

확실치 커피숍 주변으로 민박대상, 실내향촌박물관, 조선족농경력사전시구 등이 한창 건설중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미 개조를 마친 가옥과 앞으로 타진할 가옥 개조 부분 이외에도 생태농장구, 친자농경력구, 야외 캠핑구역 등 대상들을 잇달아 조성하게 된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민간자본이 ‘신농촌인’ 신분으로 합작사와 함께 향촌을 건설함으로써 농촌 유희 자원을 활성화하고 촌집체경제를 장대시키는 합작모식으로 알아본 데 따르면 2023년 촌의 집체경제 수입은 52만 1,100원에 달했다.

사계절 얼지 않는 천수(泉水)가 마을에 흐르고 백년가옥이 잘 보존되어있는 중국전통마을, ‘산 높고 물 맑음’이라는 말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북흥촌... 미래 발전성을 인정받으며 북흥촌은 ‘G331’ 반사리익과 향촌 진흥 정책의 바람을 타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흥성이고 있다. / 김가혜 김명화 기자

### 훈춘시

# 커피숍이 삼합진 북흥촌에 자리잡은 이유

— ‘G331 계획’ 반사리익에 삼합진 ‘반색’



▶ 망강각풍경구

삼합진 북흥촌 서기 김진수에 따르면 이 촌에서는 현지 상황에 맞맞게 계획하고 특색 있는 건설 사로를 구현하면서 생태적이고 살기 좋으며 관광하기 좋은 시범형 특색촌락을 가꾸는 데 전력하고 있다. 2023년 이 촌의 집체경제 수입은 52만 1,100원에 달하고 상주인구는 273가구에 601명, 인당 년수입은 2만 1,000원에 달했다. 이외 북흥촌은 2023년 주택도시농촌건설부 등 부문에서 공포한 제 6진 중국전통촌락에도 선정되었다.

삼합촌의 삼합진관광객집산중심 대상건설도 한창 순조롭게 진척되고 있었다. 삼합진정부 소재지인 삼합촌은 중조 변경에 위치해있고 조선 함경북도 회령시와 강을 사이두고 마주보고 있는데 길림 전통지산 국가급 송이버섯보호구가 촌을 감싸고 있어 생태환경이 아름답기로 소문이 자자하다. 이 촌의 국가 AA급 관광풍경구인 망강각과 성급 문물보호단위인 한왕산성도 잘 알려져있다.

현재 건설중에 있는 삼합진관광객집산중심 대상은 부지면적이 6,142평방미터, 건축면적이 1만 4,845평방미터 규모로 2025년 6월에 준공 예정인데 망강각풍경구, 백년가옥, 삼합통상구, 한왕산성을 묶어 변경 특색을 갖춘 변경관광벨트를 조성함으로써 삼합진 변경 연선 생태 및 관광 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전망이다.

### 집안시

